

낙동강 수계 연구의 총체적 분석과 그 방향성 제시

김현우^{*} · 주기재 · 반계호 · 김종원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낙동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제 2 의 하천수계이다. 그러나 지난 20~30년간 댐과 하구둑 건설(1987)등 많은 물리적 변화로 인하여 생태 변화, 부영양화의 가속등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지난 30~40년간 발표된 논문들을 분류하여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연구 방향성 제시에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논문은 총 150편이며, 이 중 동물 43편, 식물 17편, 육수 33편, 생태 23편, 미생물 9편, 지질 7편, 대기 1편, 수문학 1편, 인문환경 1편 등이 발표되었으며, 년도별로 60년대 이전 1편, 60년대 3편, 70년대 23편, 80년대 74편, 90년대 34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들 중에 동물, 식물, 육수학의 경우 대부분 분류학적인 면에 치우친 경향이 많고,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많이 있다.(예 : 하류의 동물성 플랑크톤, 상류의 저서생물상) 또한 수문학적 고찰이 미흡하여 유량, 유속들에 좌우되는 생태현상 (댐의 방류로 인한 생태변화, 영양물질의 증감, 부유생물의 생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생태학의 경우 그 기능과 구조에 대한 평가를 내릴수 있는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빈약하여, 생태계의 역동성 특히 생산력에 관한 조사가 미흡하였다. 앞으로의 낙동강 연구에 있어서는 분야별 균형있는 연구와 획일적인 조사지점 선정과 시기 (기간, 시간)가 요구되고, 장기적인 조사 (5~20년)가 이루어져야하며, 낙동강 연구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학술교류를 촉진함은 물론 연관성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